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연대감의 매개효과*

윤 현 숙⁺

(한림대학교)

염 소 림⁺⁺

(한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 가족연대감이 지니는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4년 춘천시 노인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2,03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변수의 수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Sobel-test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연대감은 낮아졌고, 자살생각은 높아졌다. 또한 가족연대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졌다. 우울과 가족연대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고, 가족연대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가족 연대감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특히,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가족 연대감의 향상을 통해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살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 우울, 가족 연대감, 자살생각, 매개효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1033504).

* 이 논문은 필자의 노인자살연구(2015, 단행본)에서 수정·보완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률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990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70명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OECD한국정책센터, 2014).

통계청의 한국 자살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25.1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32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인 노인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2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김형수, 2002; 권중돈 외, 2011; 양옥경 외, 2011)가 수행되었는데, 많은 요인들 중에 우울이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강상경, 2010).

국내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울증상을 많이 갖고 있는 노인들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들이 대다수이며, 우울증상이 어떻게 자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 연구(김동배·박서영, 2010; 신학진, 2011, 2012), 성별요인 연구(강상경, 2010; 구춘영 외, 2014), 심리학적 요인 연구(추경진·이승연, 2012; 김지훈·김경호, 2013), 건강관련 요인 연구(전진숙 외, 2005; 윤현숙·구본미, 2009; 정순돌·구미정, 2011; 이현경·장창곡, 2012; 오창석, 2012), 가족관련 요인 연구(이영경·정명희, 2013; 김윤정·강현정, 2014)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규명했지만, 노인 생활의 주요한 영역 중 하나인 가족 간의 연대감을 이용해 노인의 자살 생각을 설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 케어의 많은 부분을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 및 연대감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 노인 2,034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은 수준임을 볼 때 이 연구는 특별성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 관계를 가족연대감이라는 변수를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노인 우울, 자살생각의 개념정의

노인들은 청소년·장년층에 비해 우울증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배·손의성, 2005).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증 환자 수는 2009년 추산 147,721명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약 659억 원으로 보고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노년기 우울증상은,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 부터의 소외와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울증상은 많은 경우 불면증, 체중감소, 감정적 무감각, 강박관념, 증오심 같은 구체적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최성재·장인협, 2010).

한편 자살생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의 자살생각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서므로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로의 위험을 이해하거나 예방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형수, 2002).

아주 작은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이후에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거나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Simmons and Murply, 1985), 자살행위(suicide behavior)보다 자살생각(suicide thought)여부를 중요한 지표로 강조되고 있다.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꼭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행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살생각은 이후 자살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 노인자살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우울증을 경험 했던 노인들이 많았고, 정신병적 우울증을 가진 노인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높다고 하였다. 자살시도자의 사후조사결과 거의 모든 노인 자살 시도자가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우울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2002). 미국의 연구에서도 자살시도하는 노인들의 과반수가 우울증상이 있음이 나타났다(Conwell, 1997). 이처럼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우울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하게 되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연구로는(김형수, 2002; 임금선, 2010;곽윤복, 2012; 박선에·허준수, 2013; 박완규, 2015)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외 연구로는 우울증상이 만성이 되면 자살 등의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가 있다(Waerna, Rubenowitzb and Wilhelmsonb, 2003).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우울은 자살생각의 원인변수로 보고,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 우울, 가족 연대감의 개념 정의

노인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탄력성, 가족관계 만족도 등의 가족 관련 변수로 연구되고 있으며(김동배·손의성, 2005; 강은나·최재성, 2014),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 연대감이 낮은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김미호·문재우, 2013).

이와 같은 경험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가족 관련 변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은 일차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문화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 관계에 관련된 변수로는 가족 탄력성, 가족 결속력, 가족 결속도, 가족 관계, 가족 응집력, 가족 통합 등 다양한 변수의 이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변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 응집력은 노인이 가족구성원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권중돈 외, 2012), 가족 탄력성은 가족이 역경에 직면하여 해체되지 않고 회복되어 더욱 기능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은 특별한 자질이나 잠재력을 발휘한 결과이다(이은희·구정화, 2009). 또한 가족 결속력이란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적 자율성 정도를 의미한다(Olson, Ruccell, Sprenkle, 1983). 가족 기능은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가족의 공유된 신념이 중요하며, 가족규범, 가족역할, 가족행동, 이야기를 통한 가족 간의 이해 등 더 큰 사회적 맥락과 가족의 연대감을 형성해 주는 핵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김태현, 1989).

이처럼 가족 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이 다양한 개념들과 변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가족관계 관련된 변수를 향후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연구(천재영·이난희, 2011),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경험이 높고, 자녀의 연락이 높을수록 우울 발생이 1.5배 높다는 연구(이미애, 2011), 가족요인이 우울경험을 높인다는 연구(고정은·이민홍, 2015), 가족 간 갈등대처방안이 긍정적일수록 사고위험 및 우울의 정도가 감소되는 연구(Patricia, et al., 2010)와 같이 가족 관계 관련된 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로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우울의 원인 중의 하나로 가족관련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자살생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 또한 가족관련 요인이 매개하는 연구는 앞서 거론하였듯이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 연대감이 낮은 연구(김미호·문재우, 2013)가 있을 뿐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족 연대감이 매개되는 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3) 가족연대감, 자살생각의 개념정의

가족은 노인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류현수 외, 2007). 예를 들면, 가족의 결속력이 낮으면 노인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배지연, 2004), 자살시도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일방적 버림이나, 고립, 구성원 간의 지지체계 부족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자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고 밝혔다(박지영, 2007).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노인 학대나, 가족 갈등, 걱정 등의 부적인 관계가 노인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확인되었다(김효창·손영미, 2006; 최신애, 2010; 고민석·서인균, 2011; 임미영·김윤정, 2011). 이는 가족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노인의 자살위험이나, 자살상황, 우울감 등의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족 간의 관계가 정적인 경우를 보면, 가족 통합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았고(김형수, 2002), 가족이 같이 동거하는 경우 노인 자살생각이 낮았으며(김기태·최송식 외, 2011), 가족 응집력이나 가족 관계가 긍정적 일수록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nwell, 2002). 또한 가족 탄력성 하위요인인 가족자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경·정명희, 2013). 이처럼 가족 간의 관계가 정적인 경우 자살사고나 자살충동, 자살생각 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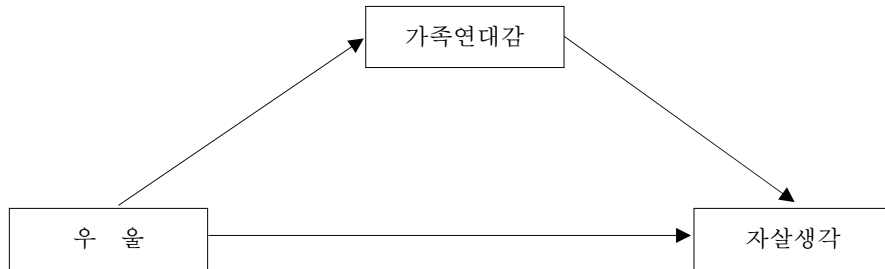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 노인자살의 요인으로 연구되었으며(waern, 2003), 가족관계가 자살생각에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Harris, 2000), 가족 관계가 낮을수록 우울상태에 빠지고 자살로 이어지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onwell, Duberstein and Caine, 2002).

이처럼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관계, 가족 응집력, 가족 통합, 가족 결속력, 가족의 소외, 가족 탄력성 등의 가족 간의 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이 있었으며, 이 변수들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 간의 관계가 정적인 경우나, 부적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연대감이 자살생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가족연대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3. 방법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춘천노인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춘천노인생활 실태조사’는 2014년 7월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에 모두 응답한 2,034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설명

(1) 독립변수 : 우울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 Andresen, Malmgren, Carter and Patrickl, 1994; Chou K. L., Chi I. and Chou N.W.S, 2004)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인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이 개발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Andresen, Malmgren, Carter and Patrickl, 1994).

우울의 문항 내용은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생활이 즐거웠다’, ‘슬픔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74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 자살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Augustine Osman, Courtney L. Bagge, Peter M. Gutierrez, Lisa C. Konick, Beverly A. Kopper and Francisco X. Barrious(2001)이 고안한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SRQ-R) : Validation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ssessment, 8.4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의 문항 내용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 경험', '지난 일년동안 자살 생각 여부', '자살관련 얘기를 타인에게 한 경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0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가족연대감

이 연구의 매개변수인 가족연대감은 Edelstein B. A., Heisel M. J. Mckee D. R. et. al(2009)가 개발한 Reasons for Living Scale-older Adult version (RFL-OA)척도를 한국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연대감의 문항의 내용은 '자살은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누린다. 그들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내겐 힘든 시기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 '가족이 내게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89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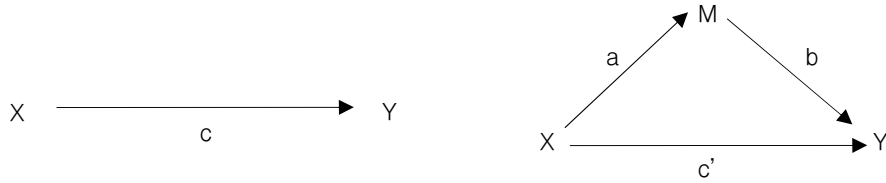
첫째, 우울, 가족연대감, 자살생각의 빈도분석과 변수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서로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가족연대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 Judd and Kenny(1981), and James Brett(1984)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넷째, Sobel-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Baron and Kenny(1986), Judd and Kenny(1981), and James Brett(1984)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로 a).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로 c).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경로 b).
 넷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할 때 매개변인을 통제하려면 이전에 종속변인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독립변인의 영향력(경로 c)이 더 이상 유의미 하지 않게 되거나 감소 될 때(경로 c')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완전 매개효과(Full-mediation)이라 하고,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만 이전 단계의 회귀계수보다 감소한 경우를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라고 한다.

(1) 연구 가설

- 가설 1.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연대감이 낮아질 것이다(Model 1).
- 가설 2.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질 것이다(Model 2).
- 가설 3. 노인의 가족연대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질 것이다(Model 3).
- 가설 4. 노인의 가족연대감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Model 4).

4.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Table 1. 연구 참여자의 특성(n=2,034)

변수		조사대상자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42	41.4
	여	1192	58.6
거주 지역	도시	1524	74.9
	농촌	510	25.1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613	30.1

	보통	507	24.9
	건강하지 않음	915	45
독거여부	독거	1432	70.4
	독거 아님	602	29.6
월평균가구소득	0-99만원	938	47.7
	100-199만원	568	28.9
	200-299만원	286	14.5
	300-399만원	148	7.5
	400만원 이상	27	1.4
연령	65세 이상	352	17.3
	70세 이상	497	24.4
	75세 이상	1185	58.3
학력	무학	470	23.1
	초등학교(중퇴~졸업)	784	38.6
	중학교(중퇴~졸업)	307	15.1
	고등학교(중퇴~졸업)	320	15.7
	대학교(중퇴~졸업)	129	6.3
	대학원 이상	24	1.2

*결측치로 인해 빈도 합계는 분석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이 842명, 여성이 1192명으로 총 2,0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 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74.9%이며, 독거여부는 독거인 상태는 70.4%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한 상태는 30.1%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0-99만원 사이가 47.7%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의 연령층이 58.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우울, 가족연대감, 자살생각의 수준

Table 2. 우울, 가족연대감, 자살생각의 수준(n=2,034)

	문항 수	최소값	최대값	합산 평균
우울	10(4점 척도)	.00	30.00	4.438
가족연대감	4(6점 척도)	4.00	24.00	19.228
자살생각	4(6점 척도)	3.00	18.00	3.821

* p<.05, ** p<.01, *** p<.001

본 연구의 우울, 가족연대감, 자살생각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우울은 총 10문항으로 평균 4.438인 수준을 보였다. 가족연대감은 총 4문항으로 평균 19.228인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자살생각은 총 4문항

건강	.158	.049	***	.005	.027		.014	.028		.025	.026	
건강하지 않음	.011	.047		.061	.026	*	.133	.026	***	.062	.025	*
월평균가구소득(0-99만원)												
100-199만원	.076	.046		-.071	.026		-.080	.026	**	-.061	.025	*
200-299만원	.148	.058	*	-.093	.032	**	-.099	.033	**	-.073	.032	*
300-399만원	.127	.077		-.135	.043	**	-.129	.044	**	-.118	.042	**
400만원 이상	.300	.108	**	-.112	.060		-.090	.061		-.073	.059	
연령(65세 이상)												
70세 이상	.148	.056	**	-.115	.031	***	-.100	.032	**	-.096	.030	**
75세 이상	.116	.052	*	-.127	.029	***	-.113	.029	***	-.112	.028	***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졸업)												
무학	-.154	.049	**	.015	.027		-.012	.028		-.005	.027	
중학교(중퇴~졸업)	.043	.055		.017	.031		.024	.031		.022	.030	
고등학교(중퇴~졸업)	.099	.058		.001	.032		-.012	.033		.014	.032	
대학교(중퇴~졸업)	.257	.084	**	.072	.047		.104	.048	*	.105	.046	*
대학원 이상	-.072	.170		.129	.095		.084	.096		.120	.092	
상수	4.615	.085	***	.908	.047	***	1.933	.068	***	1.509	.073	***
R ²	.232			.192			.167			.235		

* p<.05, ** p<.01, *** p<.001

(1) 우울이 가족연대감에 미치는 영향(Model 1)

우울이 가족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연대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700$, $p<.000$). 이는 우울이 높아지면 가족연대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되는 결과이다.

(2)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Model 2)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413$, $p<.000$). 이는 우울이 높아지면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는 결과이다.

(3) 가족연대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Model 3)

가족연대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가족연대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88$, $p<.000$). 이는 가족연대감이 높아지면,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 연구의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4) 우울, 가족연대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Model 4)

우울과 가족연대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Model 4),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322$, $p<.000$). 이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가족연대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30$, $p<.000$).

가족연대감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면, model 2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의 회귀계수($b=.413$, $p<.000$)가 model 4에서 우울과 가족연대감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b=.322$, $p<.000$)로 감소되었다. 즉, 가족연대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의 매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가설 4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5) 가족연대감 Sobel-test

Table 5. 우울, 자살생각 간의 가족연대감 매개효과

Model	독립변수 (X)	매개변수 (M)	종속변수 (Y)	b	SE	t	P	R ²
1	우울	가족연대감	-	-.700	.041	54.302	.000	.232
2	우울	-	자살생각	.413	.023	17.845	.000	.192
3	-	가족연대감	자살생각	-.188	.012	-15.804	.000	.167
4	우울	가족연대감	자살생각	.322 -.130	.024 .012	13.366 -10.686	.000 .000	.235

Table 5에서와 같이 우울, 자살생각 간의 가족연대감 매개효과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Baron and Kenny(1986), Judd and Kenny(1981), and James Brett(1984)가 제안한 분석방법으로 볼 때, 독립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을 예측할 때 매개변인인 가족연대감을 통제하려면, 이전의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독립변인인 우울의 영향력이 $b=.413$, $p<.000$ 에서 $b=.322$, $p<.000$ 으로 유의미 하지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on)라 할 수 있다.

Table 6. 가족연대감 Sobel-test

매개효과	b	SE	P-value
우울 → 가족연대감 → 자살생각	11.5432706	0.01140058	0

Table 6의 가족연대감의 Sobel-test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11.543$, $p<.000$). 이는 가족연대감이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노인 자살률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우리 사회는 노인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우울증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대처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왜 우울증상을 가지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밝혀 개입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왔다. 본 연구는 2014년 '춘천노인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가족연대감을 초점으로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연대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이 높아지면 가족 연대감 수준을 낮추고, 낮아진 가족 연대감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가족 연대감이 낮거나, 가족 간 긍정적 관계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낮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호·문제우, 김형수·권이경, 이영경·정명희, 2013). 또한 가족관계가 자살생각에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Harris, 2000)와 일치한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 노인자살의 요인으로 연구(waern, 2003)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보여줌으로 다시 한번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많은 연구들에서 가족관련 요인들이 우울에 대한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가족연대감이 매개됨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가족관련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때에도 가족연대감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가족관계가 나쁘면, 우울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자살생각을 할 때 가족연대감이 높으면 자살생각이 낮아지며, 가족연대감이 낮으면 자살생각이 높아짐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로 이어질 때 긍정적 가족연대감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 간의 가족연대감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가족 간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를 통해서 노인이 가치 있는 존재고, 필요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하찮은 것이 아닌 소중한다고 생각되어 지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살예방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 가족연대감으로 노인 자살의 예방이나 위협이 감소된다면, 강원도 노인 자살률 감소와 더 크게 나아가 OECD의 노인 자살률 감소로 이뤄질 것이며, 노인자살대응정책의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가족 연대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가족 연대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프로그램이 보건소와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대응정책은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2008년)으로 시작하여 현재 제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2014-2018년)이 시행되고 있다. 자살대응정책의 세부내용을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조성, 생애주기 및 특수지역의 정신건강증진, 지역사회 자

살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자살도구 안전관리 강화, 근거기반 자살예방 대책추진, 자살예방 활동지원 및 자원간의 연계 등 다양한 활동 분야로 나누어 자살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게이트 키퍼양성, 긴급전화 상담가 교육, 위기노인 집중 보호 및 강화, 노인 사회참여, 자살예방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관련 분야로 가족 기능을 향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가족과 친밀감 형성하기, 가족과 자주 전화하기, 가족과 산책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 등 가족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미와 흥미를 함께 접목시켜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족기능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 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자살생각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같이 사는 가족이 있거나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 있어 가족연대감 높은 사람에 비해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의 노인은 긍정적인 가족 연대감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노인 집중 사례관리, 게이트 키퍼, 말벗 도우미 등 더 많은 실천적 방안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의 대상 규모를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두번째,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 종단 연구의 변화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연대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인 자살을 예방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 개입이 활발히 연구되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장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고민석·서인균,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대한보건연구』, 37(1): 1-14.
- 고정은·이민홍, 2015, “노인의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3(2): 363-380.
- 구춘영·김정순·유정옥, 2014,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1): 24-32.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질환자 1.7배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중돈·김유진·엄태영, 201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 한 연구- 자살시도경험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1(-): 297-320.
- 김궁자, 2010, “노인자살의 이해:가족 기능적 관점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103-130.
- 김기태·최송식·박미진·박선희·고수희·박현숙, 2011, “가족구조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0): 205-228.
- 김동배·박서영, 2010, “노인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살생각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109-129.
- 김동배·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회』, 25(4): 167-187.
- 김미령, 2010,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영향”, 『노인복지연구』, 47(3): 113-136.
- 김미호·문재우, 2013, “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1-26.
- 김윤정·강현정, 2014,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4(3): 241-249.
- 김지훈·김경호, 2013,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관련된 유발변인의 영향력 분석: 심리상태와 가족관련변인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4): 246-272.
- 김태현, 1989, “한국노인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가족학적 측면”, 『한국노년학』, 9(-): 168-176.
- 김형수, 2000,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10: 25-45.
- 2000,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2): 167-187.
-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김형수·권이경, 2013,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3(6): 236-245.
- 김효창·손영미, 2006, “노인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1-19.
- 곽윤복, 2012, “노인의 알코올 사용 우울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중돈·김동기·김기수·박수진, 2012, “노인의 가족응집력,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3(3): 3-25.
- 권태연, 2011, “심리사회적행동요인을 고려한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1): 187-215.
- 류현수·이정숙·김주아, 2007, 『가족관계와 복지』, 동문사.
- 박선애·허준수, 2013,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교성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62(0): 79-108.
- 박완규, 2015, “노년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원명·민경준 외, 2012, 『우울증』, 시그마프레스.
- 박지영, 2007, “노인 자살 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295-330.
- 송남호, 1989, “만성질환자 가족군과 정상가족군의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달·손지아·박순미, 2010,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분석”, 『한국노년학회』, 30(2): 643-660.
- 신학진, 2011, “노인의 사중고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경로당 이용자 중심으로”, 『한

- 국노년학』, 31(3): 653-672.
- 2012, “노년의 4대 고통이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모형”, 『노인복지연구』, 57: 357-380.
- 양옥경·주소희, 2011, “독거노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 321-347.
- 오창석, 2012,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삶의 질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2): 179-191.
- 유정현·성혜영, 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9(2): 717-728.
- 윤현숙·구분미, 2009, “노인이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 사회복지학회』, 61(2): 303-324.
- 이미숙, 2010, “도시거주 노인의 만성질환과 우울증세의 상관성 및 사회관계망의 효과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 5-30.
- 이미애, 2011,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623-635.
- 이영경·정명희, 2013,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연구』, 61: 111-134.
- 이은희·구정화, 2009, “가족탄력성이 한부모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9(1): 195-216.
- 이현경·장창국, 2012, “한국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및 정신건강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대한 보건 연구』, 38(1): 69-79.
- 임금선, 2010,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의 중재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영·김윤정, 2011, “노인자살생각시도자의 자살시도전 경험”, 『대한 간호학회지』, 41(1): 61-71.
- 전진숙·이상신·노종래·오병훈, 2005, “한국노인의 자살사고에 연관된 사회심리학적 요인”, 『노인정신의학』, 9(2): 132-139.
- 정순돌·구미정, 2011, “우울 영향요인: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2(0): 305-324.
- 정호영·노승현, 2007,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789-805.
- 천재영·이난희, 2011, “노인의 우울에 대한 가족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노년학』, 31(4): 1169-1187.
- 추경진·이승연, 2012,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5(3): 31-53.
- 최성재·장인협, 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 최신애, 2010,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중증만성질환자돌봄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65-279.
- 최 영, 2008, “독거노인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2): 103-123.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사회통계국.

- _____, 2013, 『2013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_____, 2013, 『2013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국자살예방협회, 2011, 『자살예방 기본계획』, 한국자살예방협회.
- 허준수·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 Andresen E. M., J. A. Malmgren, W.B. Carter, et al.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 77-84.
- Bandur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ron and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Kovacs, M., and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 Psychology*, 47(2): 343-352.
- Chou, K. L., E. Chi, and N.W.S. Chow. 2004, “Sources of income and depression in elderly hongkong chines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inancial strain”, *Aging And Mental Health*, 8(3): 212-221.
- Conwell, Y., 1997, “Management of suicidal behavior in the elderly”, *Psychiatric Clinics North American*, 20: 67-83.
- Conwell, Y. Duberstein, P. R. and Caine, E. D.,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52: 193-204.
- Conwell Y, Duberstein P. R., Connor K, Eberly S, Cox C, Caine ED, 2002, “Access to firearms and risk for suicide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m J Geriatr Psychiatry*, 10: 407-416.
- Conwell, Y. Duberstein, P. R. and E. D. Caine,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52: 193-204.
- Fan, X. 2003, “Using commonly available software for bootstrapping in both substantive and measurement analys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24-50.
- Harris, T. L., and Molock, S. B., 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Suicide and Life - Threatening Behavior*, 30: 341-353.
- OECD한국정책센터, 2014, 『한눈에 보는 사회 2014』,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 Olson, Ruccell, Sprenkle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s”, *Family Process*, 22: 69-83.
- Patricia L. R, Hațegan M., Carmen B., Mircea T. A., 2010, “The emergenc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4966-497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hrout and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mon, R. L. and Murphy, P., 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423-434.

Waerna, M., Rubenowitzb, E., and Wihelmsomb, K. 2003, "Predictors of suicide in the old elderly",
Gerontology, 49(5): 328-334.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olidarity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in Korea

Yoon, Hyun-Sook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Yeom, So-rim

(Ph D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we analyzed the following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First,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family solidarity and suicide variables were analysed. Seco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Third, family solidarity Sobel-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whether family solidarity mediates the link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data used in the study comes from the survey conducted by Hallym Aging Research Institute in 2014. Through stratified multi-stage random sampling, 2,034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and living in Chun-cheon city were analysed. The result with depression and family solidarity together show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is, the more suicide ideation is. which means depression has a direct impact on suicide ideation. In addition, it indicates the higher family solidarity is, the less suicide ideation is. Sobel-test which examines indirect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family solidarity produces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The result is family solidarity mediates the link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Key words: older adult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s

[논문 접수일 : 15. 10. 16, 심사일 : 15. 11. 17, 게재 확정일 : 15. 12. 17]